

# 북한 화물열차, 1년 반 만에 단둥 도착

### 긴급 의약·생필품 등 신고 내일 돌아갈 듯 물적 교류만 재개 예상... 점진적 개방 관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16일 화물열차를 중국으로 들여보냈다.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물적 교류만 공식적으로 재개했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조중우의교를 통해 단둥으로 건너왔다.

소식통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북한 화물열차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했다”며 “화물을 신고 왔는지, 빈 차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화물열차는 내일 긴급물자를 신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신고 북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신고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여름 북한이 중국과의 인적 교류와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하고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북중은 중국 동북지역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작년부터 철도를 이용한 육로 무역 재개를 모색해왔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됐으나 갑자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무산됐다.

다만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북중 간) 물적 교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열차 운행이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게를 뒀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철도만이라도 우선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백신까지 수용하는 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바라본 조중우의교(왼쪽)와 압록강단교의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신의주가 보인다. /연합뉴스

#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분출 여파 쓰나미 경보 일본 23만명 피난지시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해일) 비상이 걸렸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물론 1960년 칠레 지진 때로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일본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쪽에 접한 국가와 호주 동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에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태평양에 접한 일본 남동부 해안 전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되고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당국이 바짝 경계하고 있다.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해일)가 관측될 수 있다고 일본 기상청이 16일 오전 0시 15분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섬 사이에 있는 아마미 군도나 도카리 열도 열대, 이와테현에 최대 3m의 쓰나미가 물

러울 수 있다며 16일 오전 0시 15분부터 순차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태평양에 접한 나머지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함께 발령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의하면 16일 정오 무렵까지 관측된 쓰나미는 아마미시 고미나토가 1.2m로 가장 높았고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1.1m를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1m 미만의 해수면 변화가 관측됐다.

16일 오전 11시20분 이와테현의 쓰나미경보가 쓰나미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것을 끝으로 일본의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의보만 남았다.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보고 사례는 없으나 주민 다수가 대피소로 옮겨 불안한 밤을 보냈다.

아마미시를 비롯해 태평양에 접한 다수 지자체가 주민에게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고 당부했다. NHK 집계에 의하면 8개 현(縣·광역자치단체)에서 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 한국 연설 취소된 대만 장관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 없다”

### 중국 입장 고려 대응 해석

한국 정부 행사에 연설자로 초청됐다가 행사 직전 취소 통보를 받은 탕평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부위원(장관급)은 이 일로 한국인과 자신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6일 탕 정부위원이 작년 말 이뤄진 평론가 이케가미 아키라와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번 행사 참석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외교부가 설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후 한국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온라인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 방송사의 취재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탕 정부위원은 “회의 당일 아침에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전자 메일이 왔다. ‘(대만) 해협에 관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이유였다”고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를 회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탕 정부위원을 온라인 연설자로 초청했다가 행사 당일 새벽에 초청을 취소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 측의 결례와 관련해 추 타이베이 한국 대표처 대리대표를 불러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우리나라 한국 주재 대표도 동시에 한국 측에 우리 정부의 엄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하기도 했다.

정외대 핵심 관계자는 “탕 정부위원의 참석 취소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경제, 문화 등에 있어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간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중국 군용기 10대 대만방공구역 무력시위

전투기를 주력으로 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가 새해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했다.

16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10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대만 공군이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다.

이날 무력 시위에는 J-16 전투기 8대, Y-8 대잠기 1대, Y-8 원거리 전자교란기 1대가 동원됐다.

중국군의 이번 공중 무력 시위는 2022년 새해 들어 가장 큰 규모라고 자위시보가 대만 국방부 통계를 인용해

### 올해 최대 규모 공중 압박

전했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관계가 계속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일상적으로 군용기들을 투입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군은 작년 239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총 961대의 군용기를 투입했다. 이는 전년의 약 380대보다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은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기간인 작년 10월 1~4일 군용기 총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여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새해 들어 다시 중국 군용기들이 대규모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올해도 중국의 대만 공중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蔣介石·1887~1975)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을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 개성(省)으로 여긴다. /연합뉴스

### 홍콩 시위자 최고 징역 40개월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에 포위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가운데 그해 11월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한 수천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포위한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